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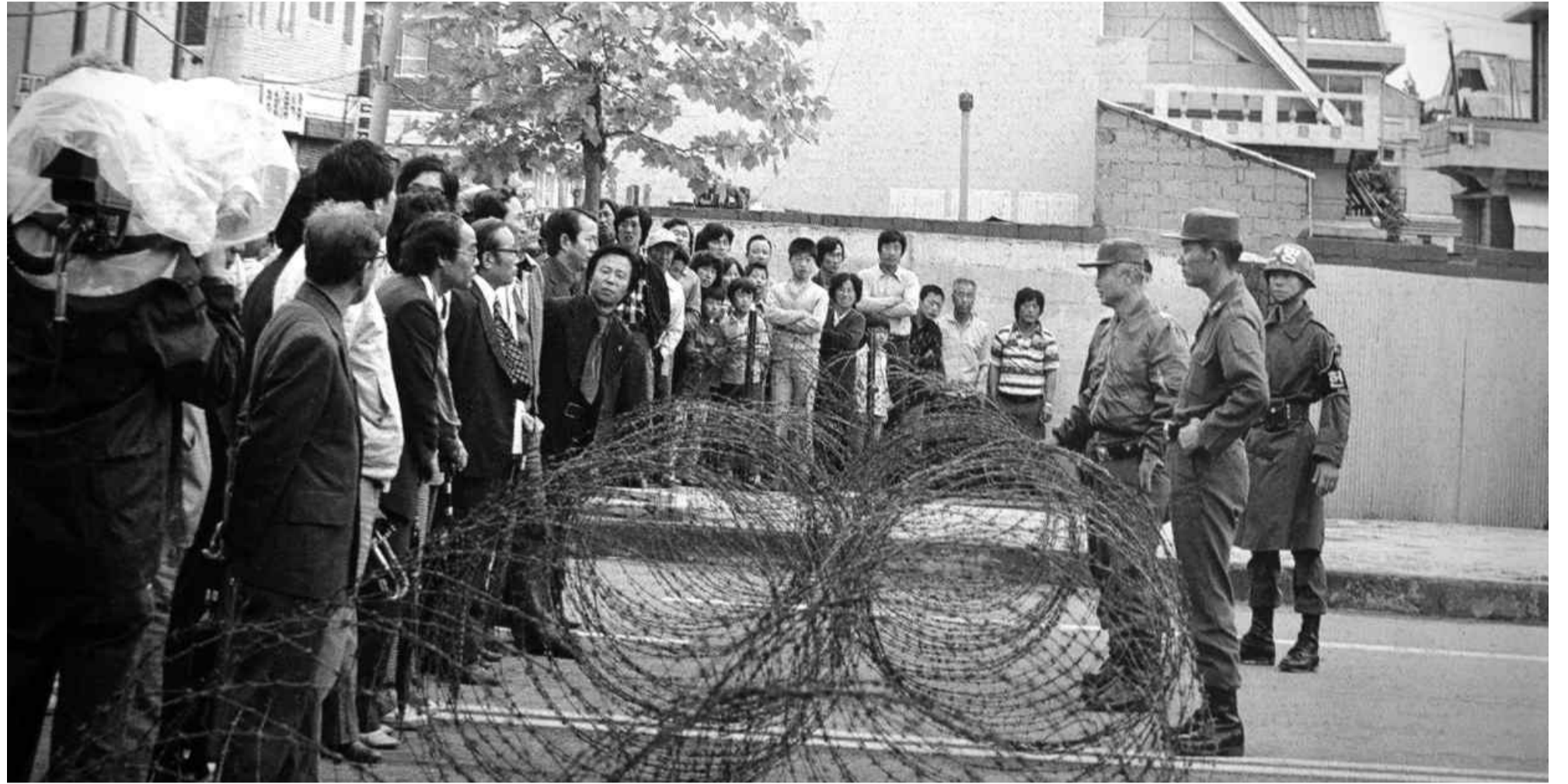
아! 열사들이여...5·18 최후항쟁 도청의 비극이여...



노먼 소프 5·18 사진 등 200여점 공개

27일 새벽 도청...윤상원·문재학·안중필 등 열사들의 참혹한 최후 모습 담겨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기자가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18민 주화운동 현장에서 취재하고 촬영한 사진들이 공개됐다. 노 먼 소프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진압 한 후, 오전 7시 30분께 가장 먼저 도청에 들어간 외신 기자 로 알려져 있다. 노먼 소프가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와 취재 완장 등의 물품, 촬영 사진이 오는 7월31일까지 옛 전남도 청 별관 2층에 전시된다.



대치 1980년 5월26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민주수호범시민결기대회 후,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계엄군과 협상하고 있다.



스러진 시민군들 1980년 전남도청을 진압한 계엄군들이 정문 앞 은행나무 곁에 모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



도청 점령한 계엄군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 직후, 노먼 소프 기자가 도청 내부 전남도경찰국 복도를 찍은 사진. 복도 중앙에 걸려있는 벽 시계가 오전 7시50분을 가리키고 있다.



윤상원 열사의 최후 1980년 5월 27일 도청을 진압한 계엄군이 2층 회의실 강당에서故 윤상원 열사를 내려다 보고 있다.



고교생 열사들 1980년 5월 27일 도청을 진압한 계엄군 총격으로 사망한 광주상고 1학년 안중필(앞)·문재학(뒤)의 시신.